

# 낭만항구 목포시 공원 장애인 화장실 설치·관리 낙제점

목포 경실련 17곳 이용실태 조사 대부분 휠체어 진입·이용 어려워 세면대 손잡이 아예 없거나 파손 전수 조사 미흡한 부분 개선해야

“휠체어를 탄 채로는 화장실 문을 닫을 수 없어요. 세면대 손잡이가 아예 없는 화장실이 수도룩합니다.”

우리나라 4대 관광거점 도시와 낭만항구 도시를 내건 목포시의 공원 화장실 대다수가 휠체어 장애인 이 사용하기에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목포시 공원 화장실 실태 파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목포 경실련에 따르면 목포시가 설치·관리하는 장애인 화장실은 모두 41곳이다.

경실련이 이 가운데 17개 공원 장애인 화장실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7곳은 열람을 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었다.

경실련은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 평화광장공원 등 17개 공원 화장실을 찾아 장애인 이용실태를 파악했다.

이들 공원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됐더라도 진입·이용이 어려운 화장실이 대다수였다.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웰빙공원은 장애인 이용객이 많은데도,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았다. 삼학도 중앙공원 화장실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이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평화광장 1호 매점 여성 화장실은 세면대가 너무 가까이 있어 휠체어 장애인이 문을 여닫는 것이 불편했다. 남성 화장실도 출입구 앞에 휠체어 바퀴가 걸리기 일췌했다. 평화광장 2호 매점 여성 화장실 은 휠체어를 들릴 공간이 전혀 없었다.

중화여린이공원은 좁은 경사로와 계단 진입로 탓 에 휠체어 장애인이 드나들기 어려웠고, 화장실 출입구 너비는 66cm에 불과했다. 평화광장공원 화장

실은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의 턱이 들쭉날쭉 했다.

용해여린이공원은 화장실 건물 턱이 6cm에 달했고, 세면대 주위 손잡이 시설이 없었다. 청호근린공원은 남성과 여성 장애인 화장실을 공용으로 뒀다. 노을공원은 여성 화장실 출입구가 파손됐고, 김대 중기념관 앞 공원 화장실은 진입로 노면 포장에 곳곳에 깨져 있었다.

목포시는 주민들의 잇따른 요청에 따라 지난 2015년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해왔다.

김남순 목포 경실련 사무국장은 “목포시가 관련 조례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을 꾸준히 점검하고 문제를 개선해야 했지만, 이 같은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조례에 따라 목포시는 점검 사항들을 분기별로 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포시는 공원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미흡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목포 경실련 관계자와 휠체어 장애인 등이 목포시 용당동 있는 웰빙공원을 찾아 장애인 전용이 없는 공원 화장실을 살펴보고 있다. <목포 경실련 제공>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 매일시장에서 열린 '야시장'에서 손님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고 있다. <해남군 제공>

## 해남군 침체된 원도심 상권·전통시장 살리기 팔 걷었다

11월까지 '땅끝달달 문화야행'

산정·화원 시장 100억 투입 현대화

해남군이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남군은 오는 14일부터 11월까지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해남읍 읍내리 '매일시장 야시장' 행사로 '땅끝달달 문화야행'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청년몰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된다.

이런 사업은 해남군이 5년간 추진하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해남군은 해남읍 상권 중심지인 읍내리·성내리 일원에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수제 초콜릿 체험장과 판매장 등

저점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문화관광재단에 상권활성화팀을 신설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얻었다. 온·오프라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상인·크리에이터 역량 강화, 판촉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정 5일시장과 화원 5일시장에서는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시설 현대화와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벌인다. 해남군 우수영 골목형 상점가는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에 선정돼 온누리 상품권 취급 등을 활성화한다.

해남군은 '착한 가격 제도'와 '지역 화폐'를 활용해 서민경제 살피기에도 팔 걷고 나섰다.

해남군은 '착한 가게'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물품 지원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배달료 지원사업 등을 진행한다. 해남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

를 돌려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매일 첫째 주 수요일은 '착한 가격 업소 이용의 날'로 정해 모든 공직자가 착한 가게 이용에 동참하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망 구축을 위한 해남형 특례보증 3종 지원과 규모 점포개선사업 등 맞춤형 지원도 마련했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 4월 해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뒤 올해 5월까지 5년간 누적 6227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올해는 해남사랑상품권 1000억원 가량을 발행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 7-8기 해남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든든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민선 8기 후반기에는 군민들이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세계 바둑 시니어 강자

11~13일 신안서 챔피언십

세계 바둑 시니어강자를 가리는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11~13일 신안서 열린다.

신안군은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중도 신안갯벌박물관에서 '제5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미국, 호주, 네덜란드, 대만, 베트남 등 8개국 16명의 시니어 프로기사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바둑대회다. 재단법인 한국기원과 신안군바둑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남도와 신안군이 후원한다. 우승 상금은 3000만원이며, 총상금은 1억 원이다. 대회에는 한국에서 조훈현,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 9단 등 7명의 선수가 우승을 목표로 출격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se@

## 영암서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 열린다

11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헤리티지 전문가 18명 위원 활동

영암군이 오는 11월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열릴 예정인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한옥건축 박람회'는 1회부터 6회까지 영암군에서 개최하다 7회 나주, 8회 강진 개최 후 9회에 다시 영암군에서 개최하게 됐다.

영암군은 지난 6회까지 개최했던 '대한민국 한옥 건축박람회'를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로 명칭을 새로이 변경했다.

또 6회까지 개최됐던 한옥의 물리적 보급에 중점을 둔 산업박람회의 틀을 깨고 한옥에 의·식·주를 포함하고 한·스타일 요소까지 접목한 헤리티지

비엔날레로의 대전환을 시도한다

이번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행정부서 위원장 우승희 영암군수, 민간부서 위원장인 김준봉 (사)한옥건축학회 회장 등 공동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에 조혜영 (사)한국조형디자인협회 이사장이 위촉됐다.

한옥건축과 전통문화, 공예, 문화재기능인, 공간기획, 홍보, 전시·브랜드 기획 등 헤리티지 관련 전문가 18명이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다양한 헤리티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목표설정, 다양성확보, 한옥문화자원 활용, 비엔날레 연계 경제적 소득 창출까지 연결해 나갈 것"이라며 "영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 해조류 본고장 완도서 '김의 날' 행사

13일 문화예술의전당서

'제13회 김의 날' 행사가 오는 13일 해조류 본고장 완도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김의 날'은 해양수산부가 2010년 김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고 김과 함께 복을 싸 먹는다는 '김 복쌈'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음력 1월 15일로 지정했다.

기념행사는 김 생산 시기에 따라 한국김산업연합회에서 매년 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김 채취 시기를 고려해 6월 완도에서 개최하게 됐다.

해양수산부, 전남도, (사)한국김산업연합회 등이 참석해 김 산업과 관련된 영상상영, 김 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김 수출액의 역대 최고 실적인 1조원(약

8억 달러) 돌파를 넘어 '2027년 김 수출 10억 달러 목표 달성 기원' 행사도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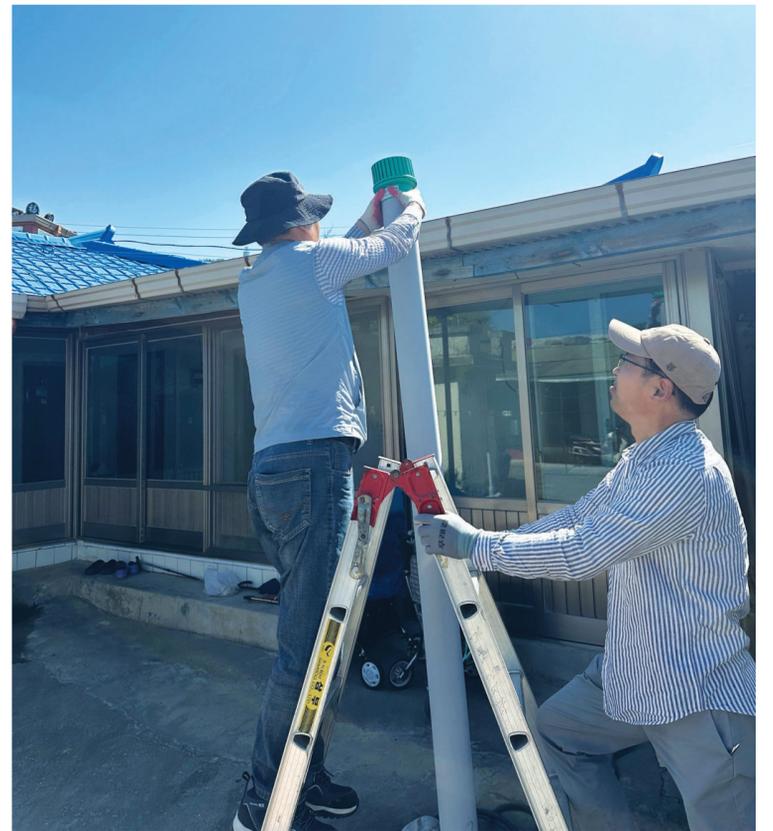
부대 행사로 김 수출 1조원 기념 김 나눔 행사, 김 사진 전시와 마른 김·수출 김 제품 전시회, 김 가래떡 시식회도 열린다.

완도군은 김, 미역, 다시마, 톳, 매생이, 곰피 등 전국 대비 50%이상 생산하는 해조류 주산지이다.

김은 23%를 생산하고 있으며 1942년 김 양식을 시작했고 2017년에는 '지주식 김 양식'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등재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김 생산 어가의 자긍심 고취와 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완도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가 정화조에 모기 유출입을 막는 방지 팬을 설치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 진도군 유충 서식지 정화조에 모기 방충망

진도읍 이어 6개 면 확대 설치

진도군 보건소는 진도읍과 6개 면 정화조에 모기 유출입 방지망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친환경 모기 방제기구인 정화조 모기 유출입방지 팬은 모기 유충의 집단 서식지인 정화조에 설치한다.

모기 성충이 통과하기 어렵게 간격 2mm 이하 방충망을 정화조 환풍기 입구에 설치해 모기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주민들은 모기 유출입을 막기 위해 양파망 등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진도군은 먼저 진도읍부터 모기 유출입방지 팬

설치 사업을 벌이고 다른 6개 면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방역 취약지와 월동모기 서식처 등에 유충 구제에 필요한 방역 약품을 뿌리고 연막 소독을 했다. 이달부터는 일본 뇌염모기 예방을 위한 여름철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정화조 모기 유출입방지 팬 설치 사업으로 방역활동을 한층 강화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감염병이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